

선진 농업경영인 특성에 관한 연구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들의 공적 내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dvanced Farm Managers
- Focusing on the Achievement Contents of the Prize Winners of
the Daesan Rural Culture Award -

이소영

S. Y. Lee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수산비즈니스학과¹
lsy2000@af.ac.kr

주진수

J. S. Joo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어업농어촌연구소²
nongsusan@af.ac.kr

신용광

Y. K. Shin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수산비즈니스학과¹
ykshin22@af.ac.kr

김종숙 *

J. S. Kim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수산비즈니스학과¹
jskim@af.ac.kr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xecutive characteristics of farmers in the achievement contents of prize winners who can be called advanced farmers. According to the analysis, advanced farmers were responsible for developing new agricultural technologies and extending into farmers in the 1990s to increase productivity. In the 2000s, individual farmers were organized to contribute to reg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by the advanced farmers. In the future, advanced farmers should play a role in the sustainable agriculture through the multi functional value oriented agriculture.

Key words : Advanced farmer, Executive characteristics, Association analysis

* 교신저자

1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Business,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2 Practical Agriculture &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I. 서론

우리나라 농업은 1980년대 후반 농산물시장이 개방된 이후, 대외적인 경쟁력의 약화로 농산물 자급률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국가경제 안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농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농업구조개선 정책, 농촌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1997년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농수산대학의 설립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농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농업인의 역량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여 농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들의 경영능력은 선진농업인들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배움으로써 농업현장에서 배양된다.

청년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될 수 있는 선진농업인 중에 각종 농업인대상을 수상한 농업인들이 있다. 농업인 포상제도는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도 농업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²⁾.

농업인 포상제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단체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표적인 시상제도로는 가나안 농민상(1991년 제정), 대산농촌문화상(1992년 제정), 한사랑농촌문화상(2006년), 한광호농업상(2015년 제정), 우서문화상(2015년 제정) 등이 있다. 수상자들은 공적 조사와 현장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되며, 심사기준은

농업발전의 방향과 가치를 반영하여 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농업인 관련 포상 기본방향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소득증대, 신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창출한 우수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타분야와의 융·복합 등으로 미래농업의 기반인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한 농업인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농업인 수상자들은 농업발전을 선도하고 농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많은 농업인과 후계농업인들의 귀감이 된다.

농업인 수상자들의 삶은 열악한 농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농업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을 지키며 새로운 농업 기술 개발로 농업발전을 지속해온 시간들로 그들의 공적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수상자들의 공적내용에는 농업 개방화 이후 우리 농업이 추구해온 가치요소의 변화과정이 나타나 있으며, 새로운 농업 기술의 개발과 보급과정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선진농업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인대상 수상자들의 공적내용에 나타난 경영자 특성을 분석하여 청년 농업인이 추구해야 할 농업의 발전 방향과 역할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 농업인시상 중 농업인 수상자가 가장 많은 대산농촌문화상의 농업인 수상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공적내용을 분석하였다.

한편 농업경영자 혹은 농업경영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농업경영체 역량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농업경영자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보다는 양적지표를 설정하여 농업경영자의 역량을 측정하였다. 서종석 외(2009)는 경영요소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즉, 경영자원, 경영환경, 경영자능력, 경영메카니즘 등에 의해 농업경영자의 성공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는 특정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의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근거하고 있다. 농업인의 날 기념 정부포상은 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농식품부장관 표창이 있다.

시점에 있어서 경영자 특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지만, 농업경영체의 본질적인 역량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농업인 포상 수상자를 통해 선진농업경영자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의 공적내용의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키워드 빈도분석과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선진 농업경영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민간농업인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진 농업경영자의 정의 및 개념은 학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통상적으로 민간농업인 수상자는 사회에서 농업·농촌발전의 기여자로 인정받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농업인 수상자를 선진 농업경영자로 간주한다.

민간농업인 수상자는 대산농촌재단의 '대산농촌문화상'에서 수상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산농촌문화상은 농업·농촌발전에 크게 공헌한 농업인의 업적을 평가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1년에 제정된 민간농업인 포상제도이다. 시상대상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개별 농업경영인이나 농업경영단체, 농업공직자이고, 주요 시상분야는 농업기술 부문, 농업경영 부문, 농촌발전 부문, 농업공직 부문 등

총 4개 부문이다.

대산농촌문화상의 각 부문별 시상기준³⁾은 다음과 같다. 농업기술부문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힘쓴 농업인으로서 농업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경영자 혹은 단체이다. 농업경영부문은 모범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농업경영자이다. 농촌발전부문은 농촌의 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 교육·문화·복지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드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농업경영인이나 단체이다. 농업공직부문은 농업·농촌정책을 입안하거나 농업기술의 개발·보급·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에 헌신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농업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는 농업인만이 아니라 학계, 공직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함께 시상부문도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농업기술 부문, 농업경영 부문, 농촌발전 부문으로 한정하였다. 자료수집은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개별공적내용'을 바탕으로 하였고, 추가로 시상 분야 담당자를 통해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농촌문화대상 분야별 수상자 수는 <표 1>과 같다. 농촌문화대상 시상분야는 농업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명칭이 변경⁴⁾되었다. '첨단농업기술진흥'은 '농업기술', '농업구조개선'은 '농업경

3) 각 부문별 후보자 자격은 시상부문에서 탁월한 업적과 귀감이 될 수 있는 도덕적 품성을 갖춘 인사로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최근 10년 이내 핵심적 성과가 있는 업적이 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공헌한 업적,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업적이 평가대상이 된다. 후보자 추천인은 대산농촌문화상 역대 수상자 또는 심사위원을 역임한 인사이거나 농업 관련 기관(공공기관, 학교) 또는 농민단체의 장, 사회·문화·학술·언론계 저명인사 등이다(대산농촌문화재단 홈페이지).

4) 농촌문화대상 제정 초기(1992년 ~ 2007년)에는 '첨단농업기술진흥', '농업구조개선', '농촌교육·문화창달', '농업공직'이었으나, 2008년부터 '농업기술', '농업경영', '농촌발전', '농업공직' 분야로 변경되었다. 이는 농업구조개선 중심에서 농촌발전중심으로의 농업정책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선진 농업경영인 특성에 관한 연구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들의 공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소영, 주진수, 신용광, 김종숙

영', '농촌교육·문화창달'은 '농촌발전'으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를 통칭하는 명칭을 '기술분야', '경영분야', '농촌분야'로 하였다. 이와 함께 시기를 구분하였는데, 명칭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기(1992~2007)', '후기(2008~2019)'로 구분하였다.

<Table 1>에 따르면, 약 30여 년 간 진행된 농촌문화대상 수상자는 50명이다. 수상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경영분야(30명)로써, 전기에는 '농업구조개선' 19명, 후기에는 '농업경영' 11명이다.

이는 그간 국내 농업이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구조나 농업경영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다양한 정책사업을 지원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기술분야에서는 전기에는 '첨단농업기술진흥' 분야에 6명이었으나 후기의 '농업기술'분야는 4명으로 감소하였고, 대신 농촌분야에서는 전기 대비 후기에 무려 6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정책의 방향이 생산성 향상에서 지역 및 농촌발전으로 변화된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Table 1. Winners of Farmers by Sector in Rural Culture Awards

(단위 : 명)

시기	기술부문	경영부문	농촌부문	
전기(1992-2007)	첨단농업기술진흥	농업구조개선	농촌교육·문화창달	소계
	6	19	2	27
후기(2008-2019)	농업기술	농업경영	농촌발전	소계
	4	11	8	23
분야별 합계	10	30	10	50

자료 : 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자료에서 작성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선진농업경영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의 공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공적 내용에 나타난 주요 단어 분석을 통해서 수상자들의 농업기술, 농업경영, 농촌발전 활동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밝히고 약 30년간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50명의 수상 공적내용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를 분석하고, 둘째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연관된 단어를 파악하였다. 단어의 빈도수와 연관어 분석은 시기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시기별로 농업경영자 특성의 변화양

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단어 빈도분석과 연관어 분석은 텍스트마이닝(Text-Mining)이다. 텍스트마이닝은 자연어로 구성된 비정형 텍스트 자료에서 일정한 패턴이나 관계를 추출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분석방법이다(유리나 외, 2017). 빈도분석과 연관성분석은 텍스트에서 자주 언급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핵심키워드와 연관관계를 갖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방법이다(유리나 외, 2017). 특히 연관성분석은 유사한 단어들을 클러스터로 그룹화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연관성분석을 통해 단어들의 연관규칙(Association Rule)을 파악하는데, 어떤 단

어가 얼마나 자주 동시에 사용되는지를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단어 빈도분석, 연관어 분석은 R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지하고 다음이 회사가 6명, 농업회사법인이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를 합하면, 21명으로 전체 수상자의 42%에 해당한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1992년-2007년 기간의 전기보다 2008년 이후에는 개별 농가는 감소하고 농업법인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전기(1992~2007년)에 작목반과 협의회 대표, 지역농협이 수상자에 포함되었으나 후기(2008~2019년)에는 마을과 지역농협이 포함되었다(Table 2).

Ⅲ. 분석결과

1. 수상자의 경영형태 및 생산방식 분포

수상자들의 경영형태별 분포를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개별 농가가 각각 16명으로 가장 많이 차

Table 2. Distribution of winners by management type

구분	개별농가	작목반 협의회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마을(지역) 대표	지역농협	회사	계
전기 (1992-2007)	11	2	8	1	0	1	4	27
후기 (2008-2019)	5	0	8	4	3	1	2	23
계	16	2	16	5	3	2	6	50

수상자의 주작목 분포는 전체 기간 중에 채소가 13, 과수가 8, 화훼가 7로 원예작물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기간별로 보면 전기에는 채소가 6, 과수가 5, 화훼가 6이었고, 후기에는 채소가

7, 과수가 3, 화훼가 1로 전기에 비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후기에는 유통, 관광, 복합경영 부문에서 수상자가 배출되었다(Table 3).

Table 3. Main crop distribution of winners

구분	복합	쌀	밀	감자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축산	수산	종묘	가공	유통	관광	농기계	계
전기 (1992-2007)	1	1	0	0	6	5	6	2	2	1	1	1	0	0	1	27
후기 (2008-2019)	2	3	1	1	7	3	1	0	0	0	0	0	1	3	1	23
계	3	4	1	1	13	8	7	2	2	1	1	1	1	3	2	50

선진 농업경영인 특성에 관한 연구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들의 공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소영, 주진수, 신용광, 김종숙

수상자의 농법별 분포를 보면, 전체 50명 수상자 중 17명이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다.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는 농업경영자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전기에는 4명이었으나 후기에는 1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채소 부

문에서 전체 13명 중 8명이 친환경 유기재배 농업인이며, 축산을 포함한 복합경영 농가 3명, 쌀 농가 3명, 과수 2명, 유통부문에서도 1명이 친환경 유기농업 분야에서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Distribution of winners by farming method

구분	복합		쌀		채소		과수		유통		계	
	일반	유기	일반	유기	일반	친환경 유기	일반	친환경 유기	일반	친환경 유기	일반	친환경 유기
전기 (1992-2007)	0	1	1	1	3	3	5	0	0	0	22	5
후기 (2008-2019)	0	2	0	2	2	5	1	2	0	1	11	12
계	0	3	1	3	5	8	6	2	0	1	33	17

2. 수상자의 농업경영자 특성

가. 키워드 빈도분석 및 연관성 분석을 통한 시기별 특성 분석

수상자의 농업경영자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적내용의 주요 단어를 분석해 보았다. 공적내용의 주요 키워드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전체 기간(1992년~2019년)동안의 공적내용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를 1위에서 20위까지의 도출하였다. 가장 많이 도출된 단어는 '농가', '생산', '농업', '개발', '설립', '농산물', '대표', '농민', '재배', '안정', '보급', '전국', '기술', '발전', '시스템', '모델', '유기농', '최초', '도입', '역할'로 나타났다. 주요단어의 출현빈도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상자들은 신 재배기술을 도입 또는 개발하여 농가에게 보급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거나 농가 조직을 설립하여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과 모델을 확립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유기농을 토대로 농촌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수상자들의 공헌이 나타나 있다.

수상자들의 시기별 경영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기(1992년~2007년)의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는 '농가', '개발', '보급', '생산', '농업', '기술', '설립', '수출', '재배', '역할', '전국', '국내', '육성', '최초', '결과', '농가소득', '농산물', '도입', '시작', '영농조합법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기(2008년~2019년)는 '농가', '농민', '대표', '발전', '생산', '농산물', '안정', '농업', '설립', '구축', '가능', '개발', '모델', '시스템', '이바지', '다양', '유기농', '재배', '전국', '신뢰'로 나타났다. 전기와 후기의 키워드를 비교해 보면, 동일 키워드는 '농가'로 전기, 후기 모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동일 키워드는 '생산', '농업', '설립'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이를 보이는 키워드는 전기는 '개발', '보급', '기술'이, 후기에는 '농민', '대표', '발전'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요 단어 분석을 통해 농업분야의 시대적 특

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전 기간 동안에 공통 인데, 이는 농업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주체는 ‘농가’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농가’를 의미한다.

Table 5. Keyword frequency by period

순위	전체(1992-2019)		전기(1992-2007)		후기(2008-2019)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농가	36	농가	16	농가	21
2	생산	31	개발	14	농민	19
3	농업	28	보급	14	대표	19
4	개발	27	생산	13	발전	18
5	설립	26	농업	12	생산	18
6	농산물	24	기술	11	농산물	17
7	대표	24	설립	11	안정	17
8	농민	23	수출	11	농업	16
9	재배	23	재배	11	설립	15
10	안정	22	역할	9	구축	14
11	보급	21	전국	9	가능	13
12	전국	21	국내	8	개발	13
13	기술	20	육성	8	모델	13
14	발전	20	최초	8	시스템	13
15	시스템	19	결과	7	이바지	13
16	모델	18	농가소득	7	다양	12
17	유기농	18	농산물	7	유기농	12
18	최초	18	도입	7	재배	12
19	도입	17	시작	7	전국	12
20	역할	17	영농조합법인	7	제시	12

주) 중복단어는 생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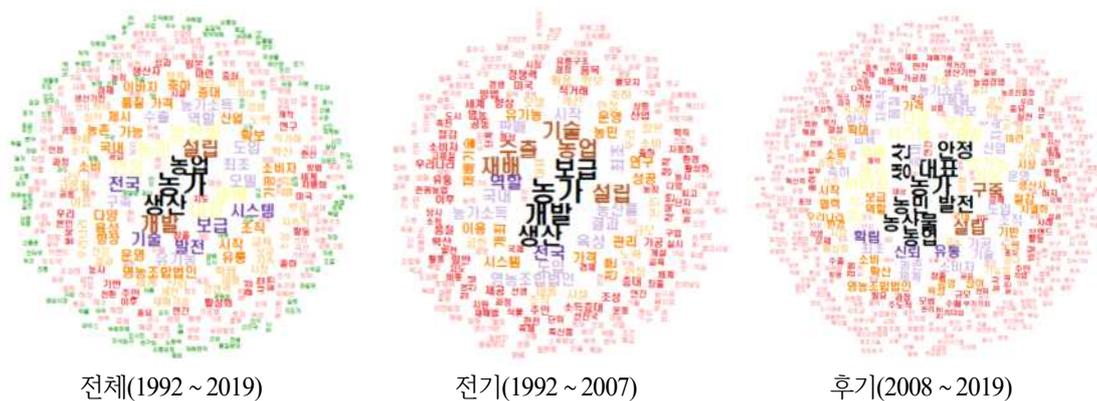


Fig. 1. Compare keyword analysis by time

둘째, 전기(1992~2007년)의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생산', '농업', '설립'인데, 이는 농가의 생산기술 보급 및 확대가 농업소득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쟁점임을 의미한다. 한편, 이외에도 전기의 경영자 특성과 관련된 키워드는 '기술', '최초', '도입', '육성', '재배'이며, 이는 농업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킨 공적이 높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출'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킨 점이 수상자의 공적내용에 포함되었다. 이 시기의 수상자들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후기(2008~2019년)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농민', '대표', '발전'인데, 농업의 경쟁력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농업인의 조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후기의 경영자 특성으로 전기와 차이를 보인 키워드는 '모델', '시스템', '구축', '다양', '유기농', '신뢰', '유통', '가공', '소비자', '지속', '품질', '차별화', '환경', '협력', '경영', '절감'으로 나타났다. 후기에는 경영모델, 시스템 구축, 고품질 추구, 유통, 가공부문 확대, 환경, 지속가능한 경영, 소비자 신뢰 등과 같이 다각화된 경영능력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친환경 지속가능한 경영을 공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연관성 분석은 다음과 같다. <Table 6>은 연관성 수준을 연결선으로 표현한 것이고, <Fig. 2>는 연관성 네트워크를 시각화 한 것이다. <Table 6>과 <Fig. 2>에 의하면 연결선 수(노드 수)가 많은 것이 연관성이 높은 주제어이다. 따라서 노드 수가 2개 이상인 단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기간(1992년~2019년)동안 '농가'와 '생산'이 각각 23개, 16개의 키워드와 연결되어 가장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기(1992년~2007년)에는 '농가', '생산', '개

발', '농업', '재배' 등의 단어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빈도수와 연관성을 함께 고려할 때, 선진농가는 생산측면에서 신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인 공적이 인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생산력 증대를 주요 정책목표로 하였던 농업구조정책과 관련지어 볼 때 당시의 정책 목표가 선진농가의 수상기준에 반영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후기(2008년 ~2019년)에는 '농가', '안정', '생산', '대표', '농민' 등의 단어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키워드 빈도수와 연관성을 고려하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가들을 조직하고 생산 유통, 관광 등 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동한 공적이 높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2004년에 발표된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추진방향과도 일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 수상부문별 농업경영자 특성

부문별(기술부문, 경영부문, 농촌부문) 수상자의 경영자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부문별 수상자 공적내용의 주요 키워드 및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부문에 있어서는, <Table 7>과 같이 '개발', '보급', '농가', '기술', '농민'이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고 이어서 '생산', '산업', '우리나라', '일본', '재배'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부문 수상자의 공적내용을 전후기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기에는 '보급', '개발', '기술', '농가', '생산'이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후기에는 '개발', '농민', '산업', '발전', '이바지' 순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기술부문의 수상자들은 전기에는 신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이 높게

Table 6. Keyword Association Analysis

순위	전체(1992-2019)		전기(1992-2007)		후기(2008-2019)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농가	23	농가	13	농가	15
2	생산	16	생산	11	안정	11
3	농업	5	개발	11	생산	9
4	농산물	4	농업	10	대표	9
5	안정	4	재배	7	농민	8
6	설립	4	설립	5	설립	6
7	개발	4	보급	4	발전	6
8	유기농	3	개발.농가	3	농업	4
9	재배	3	국내	2	구축	3
10	농가.설립	3	최초	2	농가.안정	3
11	시스템	2	역할	2	농산물	2
12	발전	2	기술	2		
13	대표	2				
14	생산.재배	2				
15	농업.생산	2				
16	농가.안정	2				
17	농산물.생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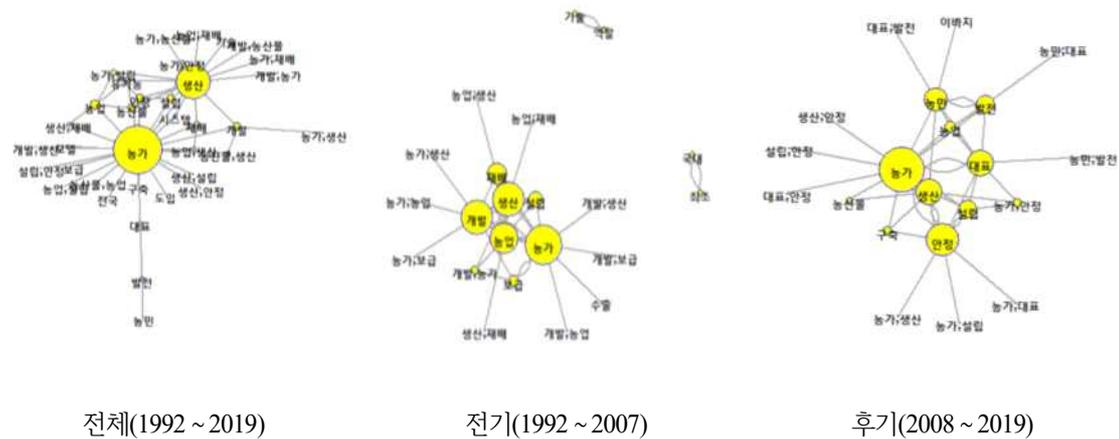


Fig. 2. Compare relevance analysis by period

Table 8. Management keyword occurrence frequency

순위	전체(1992-2019)		전기(1992-2007)		후기(2008-2019)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농가	23	농가	12	농가	12
2	생산	19	개발	10	구축	10
3	설립	18	농업	10	생산	10
4	농업	17	생산	9	안정	10
5	개발	16	설립	9	농산물	9
6	농산물	15	수출	9	설립	9
7	안정	14	보급	8	농민	8
8	재배	14	재배	8	농업	8
9	모델	13	기술	7	대표	8
10	보급	13	영농조합법인	7	모델	8
11	수출	13	결과	6	시스템	8
12	시스템	13	농가소득	6	가능	7
13	기술	12	농산물	6	지속	7
14	구축	11	역할	6	개발	6
15	대표	11	육성	6	도입	6
16	영농조합법인	11	이용	6	발전	6
17	전국	11	전국	6	신뢰	6
18	도입	10	개선	5	유통	6
19	역할	10	개최	5	재배	6
20	유기농	10	관리	5	제시	6

농촌발전 부문 수상자의 공적내용에는 ‘대표’, ‘발전’, ‘농민’, ‘농촌’, ‘가공’이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고, 다음으로 ‘농업’, ‘주민’, ‘확산’, ‘활성화’, ‘농가’, ‘농가소득’, ‘농산물’, ‘마을’, ‘생산’, ‘설립’, ‘전국’, ‘교육’, ‘도입’, ‘사업’, ‘신뢰’의 순으로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9). 전기 수상자는 2명뿐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후기 수상자들만 파

악해보면 전체기간과 큰 차이는 없으나 ‘농촌’, ‘활성화’ 등의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농촌발전부문은 기술부문이나 경영부문과 비교해 볼 때, 마을, 농촌 등 지역의 개념이 중요시되었고, 농업인 및 도시민 교육과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수상자들의 공적이 높게 평가되었다.

선진 농업경영인 특성에 관한 연구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들의 공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소영, 주진수, 신용광, 김종숙

Table 9. Rural Development Sector Keyword Frequency

순위	전체(1992-2019)		후기(2008-2019)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대표	9	대표	8
2	발전	9	발전	8
3	농민	8	가공	7
4	농촌	8	농민	7
5	가공	7	농업	7
6	농업	7	농촌	7
7	주민	7	농가	6
8	확산	7	농산물	6
9	활성화	7	설립	6
10	농가	6	주민	6
11	농가소득	6	확산	6
12	농산물	6	활성화	6
13	마을	6	구축	5
14	생산	6	농가소득	5
15	설립	6	모델	5
16	전국	6	사업	5
17	교육	5	생산	5
18	도입	5	신뢰	5
19	사업	5	이바지	5
20	신뢰	5	전국	5

부문별 연관성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10>과 같다⁵⁾. 우선 기술부문에서는 ‘개발’, ‘농가’, ‘생산’, ‘보급’ 등의 키워드와 연관된 단어는 각각 17개, 16개, 11개, 4개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에게 보급하고 생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영부문에 있어서는 ‘농가’, ‘설립’, ‘농산물’, ‘농업’과 관련된 핵심단어가 각각 21개, 9개, 6개, 6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가 조직을 형성하여 법인체를 설립하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공적이 파악된다. 한편, 경영부문에 유기농의 연

관성이 파악된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며 경영의 다각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선진농업인들이 다수 포함되었음을 말해준다. 농촌발전 부문에서는 ‘농민’, ‘대표’, ‘발전’, ‘농업’, ‘가공’ 등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각각 연관된 단어 수는 22개, 14개, 12개, 11개, 7개 이다. 이는 조직의 형태가 훨씬 전문적이어서 경영체의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고, 농산물 가공을 통해 농업발전을 도모한 공적을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5) 부문별 연관성 분석은 부문별로 분석대상 표본수가 적어서 기간을 시기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기간으로만 분석하였다.

Table 10. Segment Keyword Association Analysis(1992-2019)

순위	기술부문		경영부문		농촌발전 부문	
	키워드	연결선 수	키워드	연결선 수	키워드	연결선 수
1	개발	17	농가	21	농민	22
2	농가	16	설립	9	대표	14
3	생산	11	농산물	6	발전	12
4	보급	4	농업	6	농업	11
5	재배	3	안정	4	가공	7
6	생산. 재배	2	생산	4	설립	5
7	농가. 재배	2	유기농	2	전국	3
8	개발. 재배	2	개발. 생산	2	확산	3
9	기술. 생산	2	농업. 안정	2	생산	2
10	기술. 농가	2	농업. 설립	2	농산물	2
11	개발. 기술	2	생산. 안정	2	활성화	2
12	보급. 생산	2	농가. 설립	2	농업. 전국	2
13	개발. 농가	2	농산물. 생산	2	농민. 전국	2
14			농업. 생산	2	발전. 전국	2
15					농업. 확산	2
16					발전. 확산	2
17					농업. 농촌	2
18					농업. 대표	2
19					가공. 설립	2
20					농민. 설립	2
21					가공. 농민	2
22					대표. 설립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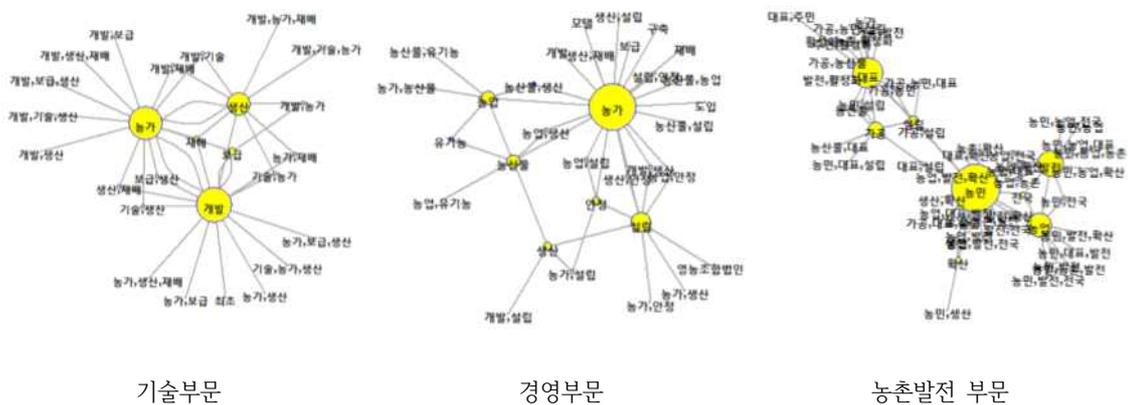


Fig. 3. Comparison of Keyword Association Analysis by Sector(1992-2019)

이상 수상자들의 경영자 특성을 요약해 보면 기술부문에서는 신기술 도입으로 농가보급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경영부문에서는 조직화를 통한 규모경제와 지역 농업의 시스템 구축에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농촌발전부문에서는 농업생산만이 아니라 농산물 가공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고 도시민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여 관광, 체험, 교육 등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농업경영에 있어서 경영자의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생산성 증대, 생산비용 증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업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경영체의 성과는 농업경영자의 특성과 역량이 따라 달라진다. 특히, 농가수 및 농업경영인 감소, 농업노동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경영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의 농업경영자의 특성이나 역량을 파악한 선행연구에서는 농업경영자에 대한 특성을 양적 지표를 통해 파악하였다. 주요 양적지표는 경영자의 연령, 교육수준, 농업종사 기간 등의 인구통계학적 지표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 농가소득 등의 경제적 지표를 포함한다. 이러한 양적분석은 자료의 객관화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각의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자료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농업인 포상제도는 사회적으로 농업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 포상제도 중

대표적인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대산농촌문화상 공적내용의 텍스트에 대한 빈도분석과 연관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단어의 빈도분석 결과에 의하면 ‘농가’, ‘생산’, ‘농업’, ‘개발’, ‘설립’ 등의 키워드가 주로 도출되었다. 농촌문화대상을 수상한 농업경영자들은 새로운 재배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다른 농가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이와 함께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시기별로 농업경영자 특성변화의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전기(1992~2007년)에는 주로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경영자가 수상을 하였고, 후기(2008~2019년)에는 농가조직화,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농촌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가 수상을 하였다. 이러한 농촌문화대상 수상자의 특성은 국내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선진 농업경영자의 기본적인 특성은 지역농업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성 확대가 중요한 시기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당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이후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시기에는 개별농업경영체를 조직하고, 경영을 다각화하여 지역농업발전에 공헌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는 농업농촌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농업경영자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특정분야의 수상자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분석영역을 확대하여 농업경영자의 역량을 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농업경영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V. 참고문헌

1. 김경태, 안정국, 김동현. (2018). 빅 데이터 활용서 (I). 시대인.
2. 김병택, 2002, 한국의 농업정책, 한울출판사.
3. 김정호, 2012, 가족농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4. 서종석, 김석현, 조규대, 강혜정, 2009, 고소득 농업경영체 성공요인 분석 및 정책대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5. 유리나, 황수철(2017),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국내 농식품유통 연구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0): 215-226.
6. 조민호. (2019).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위한 R 데이터 분석. 정보문화사.

논문접수일 : 2019년 10월 21일
논문수정일 : 2019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28일